

브라질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2013.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8,515천㎢	GDP (2012년도)	22,531 억 달러
인구 (2012년도)	198.36 백만명	1인당GDP (2012년도)	11,359 달러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eal (R)
대외 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환율(US\$기준) (2012년도)	1.95

□ 국토 면적, 인구, GDP 면에서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석유, 철광석 등 각종 광물자원과 커피, 대두, 원당 등 농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며, 심해유전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세계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브라질은 중국, 러시아, 인도와 함께 내수시장이 크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브릭스(BRICs)의 일원이자,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된 중남미 최대 공업국임.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음. 2010년 10월 대선에서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세프 후보가 당선되어 2011년 1월 신정부가 출범하였음.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등 국제정치적 리더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변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e	2013 ^f
경제성장률	-0.3	7.5	2.7	0.9	2.5
재정수지 / GDP	-3.0	-2.7	-2.5	-2.7	-3.0
소비자물가상승률	4.9	5.0	6.6	5.4	6.3

자료: IMF.

□ 3년 연속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3년 2분기부터 경기회복 조짐

- 2011년 이후 낮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경제를 견인해 오고 있으나, 산업경쟁력 하락 및 국내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3년 연속 3% 이하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브라질경제는 2011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 및 공공투자 프로젝트 집행연기 및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 4.3%, 세계 경제성장률 2.8% 보다 낮은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2년에도 금리인하, 세금감면, 대출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등 수 차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0.9%로 둔화됨. 2012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3.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물가상승 압박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2013년 연간 성장률은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압박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 몇 년간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상한선(4.5%+2%)을 초과하고 있음.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자 2013년 4월부터 긴축통화정책으로 선회한 후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함. (2013년 10월 말 현재 기준금리: 9.5%)

- 높은 임금인상률, 식료품가격 인상 등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3년 6월에는 6.7%까지 증가하여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상한선(4.5%+2%)을 초과하였으나 9월과 10월 연속 6% 아래인 5.7%대로 안정화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2010년에는 대선을 실시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와 정부의 긴축정책 고수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2.7%로 감소했으며, 2011년에도 호세프정부의 긴축정책 기조 강화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2.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012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GDP 대비 -2.7%를 기록함.
- 2013년 중 브라질정부는 지지부진한 경기회복, 6월의 대규모 시위에 따른 경제 개혁 프로그램 실시 및 2014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전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어 2013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한 GDP 대비 -3.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이후 국내총투자율 20%대 이하로 저조

- IMF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브라질의 국내투자율이 주요 개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2012년 이후 그 격차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1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낮은 투자율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을 둔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억제 저하 등의 국내적 요인이 투자율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자재, 농업, 전자, IT 등 다양한 산업/수출구조 및 높은 수준의 기술력 보유

- 브라질은 농산물, 천연자원 등의 원자재산업 뿐만아니라 전자, IT 등의 제조업 (GDP의 14%)도 비교적 발달되어 있어 여타 원자재부국과는 달리 다양한 산업 및 수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의 기술수준 평가에서 브라질은 BRICs국가 중 가장 높은 46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양호한 은행건전성 및 발달된 금융산업

-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의 금융산업 평가에서 브라질은 금융상품의 다양성, 양호한 은행건전성 및 증권 거래소 규제 등이 반영되어 50위를 기록함. PWC가 2013년 세계51국의 금융산업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허브 후보지에서 브라질은 상하이, 두바이, 멕시코시티 등과 함께 유망한 금융허브로 선정됨.

□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평가에서 116/189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

- 2013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브라질은 세계 189개국 중 116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세계은행이 브라질의 투자환경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는 평가분야(10개) 중에서 조세납부(159위), 사업폐쇄(135위), 대외무역(124위), 계약실행(121위) 등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데 기인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기술력 등으로 성장잠재력 풍부

- 브라질은 풍부한 부존자원, 인구 1억 9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치,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한해 3억의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 주요 농작물은 밀(세계 3위), 콩(세계 1위), 쌀(세계 10위), 커피(세계 1위), 설탕(세계 3위), 면화(세계 6위)임.
 - 석유, 철광석, 석탄, 주석, 망간, 니켈, 보크사이트 등 30종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석유의 완전자급을 달성하였고 2007년부터 석유수출국 대열에 진입하였음.
 - 브라질은 대부분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있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동차, 전자, IT 등 주요 제조업분야에 다국적기업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음. 브라질 국내기업도 석유, 철강, 항공기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으로 약화되었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

□ 2009 년 이후 FDI 유입실적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 추세 지속

- 2003~12년간 연평균 GDP의 2.5%의 해외직접투자액(FDI)이 브라질로 유입되어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함. 산업 별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원자재가격 붐에 따라 광업 및 농업에 대한 FDI가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부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주요 외국인투자국은 미국,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지분투자 및 회사 내부간 거래(intercompany loans)의 형식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조사됨.
- 브라질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성장촉진계획(PAC) 추진, 광물과 에너지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FDI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FDI유입액은 653억달러(GDP의 약3%)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남미 1위인 동시에 개도국 중 중국에 이어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낮은 국내저축률과 투자율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 IMF에 따르면, 2005~09년간 브라질과 중국, 멕시코, 미국, 일본 등의 국가그룹*과의 저축율의 차이는 GDP의 7%p를 보이며, 이와 같은 저축율 차이의 주요 원인은 브라질의 낮은 가계 및 공공저축율에 있다고 설명함. 특히, 금융산업 발달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관대한 공적연금 등이 브라질의 낮은 가계 저축율의 주요 원인이며, 경직된 예산관리로 인한 높은 예산집행이 공공부분의 저축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됨.
- *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남아공, 영국, 미국
- 또한, IMF는 2004년 이후 브라질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이 공적 및 민간부문 소비라고 설명하면서 여타 신흥국의 동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요인이 투자인 것과 비교하면 브라질은 매우 특이한 사례임을 언급함.

□ 취약한 인프라수준(2013년 평가에서 인프라순위 148개국 중 114위 기록)

-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의 인프라스트럭처 평가에서 2008년 98위, 2010년 84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2013년에는 114위로 2008년 대비 16단계 하락함.

- 특히, 항구(131위)는 베네수엘라(141위)와 내륙국가인 볼리비아(142위)를 제외하고 중남미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항(123위)도 베네수엘라(135위), 아이티(139위), 파라과이(141위)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 정책성과

□ 정부의 원유산업 등에 대한 개입 심화

- 브라질은 그동안 원유산업에 대한 민간의 석유개발권 보유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나 2006년 대규모 암염하층 유전 발견 이후 원유수익 확충 및 개발계약방식 변경을 통한 페트라브라스(Petrobras) 권한 강화 등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자국산제품 사용의무) 자국산제품 사용의무 정책은 자국 선박산업 양성 등을 목적으로 룰라정부때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06년 대규모 암염하층 유전 발견 이후엔 국영에너지기업인 Petrobras가 심해유전개발에 사용하는 해양플랜트, 시추선 등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비중을 65%로 높이는 등 정부의 통제가 심화됨.

- 그러나, 브라질 국내산업의 기술력으로 심해유전 개발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프로젝트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10월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제품 사용의무 정책을 일부 완화하여 심해저(subsea)의 첨단장비에 대한 국산품 의무사용 비중을 감소함.

- (첫 번째 암염하층 유전 경매 실시) 2013년 10월 21일 첫 번째 심해 암염하층 광구인 리브라광구에 대한 개발권입찰이 실시됨. 이번 입찰에서는 브라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등 5개국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35년 동안 약 120억 배럴 규모의 석유 채굴권을 부여받음.

□ 2011년 이후 경기부양책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효과는 미미

- 2011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2.8%) 보다 낮은 2.7%를 기록하자, 브라질정부는 소비와 투자확대 촉진을 위해 2011년 말 이후 수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초기에는 소비 및 건설부문 등 국내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세금인하 및 기업의 근로소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공급측 제약요인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미미함.

- 이에, 브라질정부는 최근의 경기부양책에서는 기존 정책의 연장 및 노동, 에너지 비용 감소, 물가관리 등의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을 해결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음.

○ 주요 경기부양책

- 4월: 자동차부품과 기계장비 등 15개 산업에 대한 감세 등 650억 헤알 규모(약 37조 415억원)
- 5월: 배기량 1천cc이하 자동차에 대한 공산품세(IPI 면제 및 금융거래세 인하 (2.5%-->1.5%) 등 27억 헤알 규모(1조 5,400억원)
- 7월: 버스, 구급차, 건설중장비 등에 대한 정부구매 확대 등 84억 3,400만 헤알 규모의 정부예산 배정
- 8월: 사회기반시설 현대화 등 1,330억헤알(약75조원)
- 12월: 민간건설부문에 대해 기업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등 28억 헤알 규모(약 1조 4,315억원)

□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헤알화가치 변동폭 확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 헤알화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및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2009~11년간 통화(헤알화)가치상승이 지속됨. 이에 브라질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외차입 달러화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IOF)세율을 인상하고 중앙은행의 달러화 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금리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함.

○ 브라질정부의 적극적인 환율관리로 2012년 말 헤알화환율은 달러당 2.04헤알을 기록함. 2013년 5월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 급속히 확산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브라질 헤알화는 8월 중 달러당 2.45헤알로 하락하였으나, 브라질정부의 통화스왑 등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10월에는 달러당 2.2헤알 수준으로 안정됨.

□ 2013년 6월, 금융거래세(IOF) 폐지

○ 외자유입 급증으로 헤알화강세가 지속되자, 브라질정부는 2010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단기외자에 대한 금융거래세(IOF)*를 2%에서 6%로 인상하였으나, 2013년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 움직임에 따라 브라질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 지자 브라질당국은 금융거래세를 폐지함.

*금융거래세는 브라질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부과되며,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1.5%를 부과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발생이후 폐지되었다가 2009년 10월부터 2%를 재부과 해 왔음. 브라질정부는 2010년 10월 4일 동 세율을 4%로 인상하였고, 불과 2주후인 10월 18일에 6%로 2%p를 추가 인상함.

□ 빈곤감축과 소득불평등 축소 등으로 중산층 확대

○ 브라질은 톨라정권 취임 이후 고용확대,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

(BolsaFamilia) 등에 힘입어 실질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빈곤축소와 소득불평등 해소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11월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은 2009년 기준 총인구의 1/3인 61백만명이 중산층*으로 정의되어 중남미에서 중산층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2000년~10년간 평균지니계수도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5% 하락함.

*중산층의 정의 : 일일소득 US\$10~US\$50

- 실업률은 2012년 말 5.5%로 최근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저소득층 비율은 2008년 말 26%에서 2011년말 19%로 크게 감소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e
경 상 수 지	-24,306	-47,273	-52,480	-54,246	-74,012
경 상 수 지 / G D P	-1.5	-2.2	-2.1	-2.4	-3.3
상 품 수 지	25,272	20,147	29,807	19,431	3,371
수 출	152,995	201,915	256,040	242,580	244,794
수 입	127,723	181,768	226,233	223,149	241,423
외 환 보 유 액	231,888	280,570	343,384	369,566	363,979
총 외 채 잔 액	281,651	460,000	522,000	575,800	602,2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7.4	21.5	21.1	25.6	26.3
D S R	32.6	19.0	19.4	22.5	17.6

자료: IMF, EIU, OECD(CRAM).

□ 상품수지 흑자규모 대폭 축소

-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헤알화가치 하락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07년까지 4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 이후 수출증가를 상회하는 수입증가로 인해 흑자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2012년에는 헤알화 강세 및 중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감소하면서 총수출증가율이 -3.8%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수입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34.7% 감소한 194억 달러로 축소됨.
- 2013년 3분기말 현재 상품수지가 16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90% 감소하여 2013년 연간 상품수지 흑자는 2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금년 1분기 중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라브라스(Petrobras)의 일시적인 생산중단으로 인한 원유, 석유 등의 원자재 수출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상수지적자폭 확대되고 있으나 FDI유입액으로 충당 가능한 규모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송금 증가로 소득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2008년 6년만에 적자로 반전된 이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FDI유입액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임.
- 2011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축소된 GDP 대비 -2.1%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2.4%로 확대되었음.
- 2013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3%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의 12개월분 이상 유지

- 2012년말 외환보유액은 3,621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12개월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함.

III.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1월 집권 여당의 지우마 호세프정부 출범

- 2010년 10월 31일 집권여당의 정무장관이자 룰라 전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마호세프후보가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1년 1월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2013년 6월 시위로 하락한 호세프대통령 지지율 재상승

- 2013년 3월 최고 79%까지 상승했던 호세프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월과 7월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3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11월 여론조사기관인 MDA의 발표에 따르면 호세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9%, 보통 37.7%, 부정 22.7%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1월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Ibope의 조사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예상득표율이 40~43%로 2위인 마리나 실바 전 연방상원의원 (15~16%)을 최대 28%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대선 1차 투표에서의 당선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2013년 6월, 20년 만에 최대 규모 시위 발생

- 2013년 6월 2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상파울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로 발전함. 주요 이슈도 교육 및 의료제도 개선, 부정부패 청산, 월드컵 경기장 건설 반대 등 정치 및 사회 개혁 요구로 확대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브라질 120개 도시 140만명이 시위에 참가함.

- BBC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위대의 84%는 특별한 지지정당이 없으며, 77%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중산층 및 학생으로 나타남.

- 호세프 대통령은 6월 21일 대중교통체계 개선 계획(230억 달러 규모), 의료서비스 개선(외국 의료진 초청 및 신규병원 건립 등) 및 공교육 강화 등의 개혁안을 발표 등을 통해 시위에서 나타난 개혁요구를 수용함.

□ 빈부격차 및 치안불안 지속

- 브라질은 소득의 상위 10%가 국부의 42.9%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민의 10.8%는 하루소득이 2달러 이하인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등 빈부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브라질정부는 월소득 70헤알(약4만원)미만인 인구를 극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총인구의 8.5%에 해당하는 1천 620만 명이 극빈곤층으로 파악되었음.
- 이러한 사회현실로 인해 브라질은 20대80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빈곤으로부터 파생되는 강력범죄, 마약,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극빈곤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브라질정부는 2003년부터 시행 중인 Bolsa Familia(Bolsa Familia)(생계비 마련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브라질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극빈곤층 감소 및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기대하고 있음.

3. 국제 관계

□ 역내 영향력 확대, 글로벌강국으로 부상

- 브라질은 중남미의 정치, 경제통합 및 역내주도권 강화를 위해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신흥경제국 (IBSA, 남아공와인도) 등과 연대하여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을 확대하고 있고, 과거 미국 및 EU 중심의 통상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실리위주의 외교정책 노선 유지

- 미국과는 미주자유무역협정 (FTAA) 협상, 철강분쟁, 농업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잦은 마찰을 보이고 있고,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FTA 체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미국의 남미국가에 대한 영향력확대를 견제하고 있음.

□ EU와의 FTA협상 재개의사 시사

- EU와는 1999년부터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EU시장에 대한 농산물 개방, 자동차시장 및 통신시장 개방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04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 브라질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EU와의 FTA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 기계장비, 부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EU와 Mercosur 양측의 총교역품목 중 85~90%에 대해 10~15년의 시한을 두고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체 협상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임.

□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 추진

-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은 고위인사 교류, 교역 및 투자유치단 파견 등 브라질이 최근 경험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교역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브라질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공조입

장을 취하고있음.

- 한편, 2013년 3월 브라질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600억헤알(약33조1천억)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교역강화에 노력하고있음.

□ 이란과의 외교관계에 변화

- 전룰라대통령 집권 시 브라질은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이란이 인권유린 및 핵개발에 관한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12년 1월 이란의 마무드 아미디네자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방문에 브라질정부가 아미디네자드대통령을 초대하지 않는 등 양국관계의 변화가 발생함. 이에 대해 브라질과 이란은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2005년 12월 IMF 차관잔액 156억 달러와 2006~07년에 기일도래하는 파리클럽 채무 25.75억 달러를 전액조기 상환하였으며, 2006년 2월에도 브래디본드 채무 잔액 66.4억 달러 전액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환매(buyback)한 바 있음.
- 브라질정부의 외채 조기상환 실시는 과거 선거가 있는 해에 반복되었던 금융불안을 조기에방하는한편, 브라질의 투자신인도 제고 및 신용등급 상승에 기여함.

□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

- 2008년 2월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이 순외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외환보유액 증가 및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브라질의 순채권국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적극적인 외채관리 결과 외채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정부채무는 증가 추세

- IMF에 따르면, 브라질 외채의 평균만기는 2002년 3.6년에서 2012년 4.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고정금리 및 물가연동채무 비중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채 관리 결과 브라질의 외채구조는 지난 10년간 상당부분 개선됨.

- 한편, 브라질정부의 브라질경제개발은행(BNDES)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시행 결과 2012년 GDP 대비 정부채무가 전년대비 4.5%p 상승한 58.7%를 기록함. S&P 등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브라질의 정부채무 증가세 및 동일한 신용등급 국가군(BBB)보다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채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2. 국제시장평가

□ S&P와 Fitch 2013년 6월과 10월 각각 등급 하향조정

- S&P와 Moody's는 정부의 재정악화, 성장둔화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을 사유로 브라질 신용등급을 각각 '안정적' (stable)에서 '부정적' (negative) 및 '긍정적' (positive)에서 '안정적' (stable)로 하향조정함.

□ 국가신용도평가 추이

- OECD:3등급(2007.6)→3등급(2011.6) →3등급(2012.6) → 3등급(2013. 10)
- S&P:BB+(2007.5)→BBB-(2008.4)→BBB(2011.11)→ BBB(2013.6) 안정적에서 부정적
- Moody's:Ba1(2007.8)→Baa3(2009.9)→Baa2(2011.6) → Baa2(2013. 10) 긍정적에서 안정적
- Fitch:BBB-(2008.5)→BBB(2011.4)→BBB(2011.10)→BBB(2012.7)→ BBB(2013.7)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EXIM:최고부보율 적용
- 영국ECGD: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는제한적 인수
- 독일Hermes:단기전액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4년 이후 대브라질 수출 급증

- 브라질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순위 16위, 수입대상국 순위 24위 국가로서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임.
-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은 1990년 1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7억 달러, 2012년에는 103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음. 대브라질수입도 1990년 7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9억 달러, 2012년에는 6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수년간 대브라질수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무역수지도 2006년에 3.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0년 30억 달러, 2011년 55억 달러, 2012년 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2012년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LCD 및 칼라TV 부품, 핸드폰부품 및 건설중장비 등임. 특히 자동차는 2009년부터 대브라질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대브라질 수출의 10.8%를 차지함. 한편, 대브라질 주요수입품목은 철광석, 펄프, 천연섬유 및 농산물 등 주로 원자재임.

□ 2008년 이후 대브라질 투자증가세 지속

- 우리나라 기업의 대브라질 투자는 1980년대 말까지는 불과 2건(2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경제협력개발력이 부상되고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함.
- 1998년 경제위기와 2002년 금융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2004년까지 투자가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부터 브라질내수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1년에는 신규법인수 33개, 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1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짐.
- 2008~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기업영업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대브라질 직접투자 규모가 각각 1.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브라질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10년에는 SK네트웍스의 브라질 철광석기업 지분인수를 위한 대규모 투자(7억 달러)로 인해 대브라질 직접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신규법인수도 32개로 최고기록을 경신하였음.
- 2012년말 기준 대브라질 직접투자 규모는 신규법인수 208개, 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투자업종은 주로 광업과 제조업이며, 투자지역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나우스지역, 상업중심지인 사오파울루와 리오데자네이루 등에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한·브라질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출	77	118	103	운송장비, 대두, 커피, 자동차
수입	47	63	61	기계, 전자 및 운송기기, 원유, 화학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브라질은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내수확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2004~10년 중 평균 경제성장률 4.4%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음. 그러나, 세계경기침체, 경기부양책 효과 미비, GDP 대비 낮은 국내총투자율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이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보이긴 하나 여전히 3%대 이하의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6월과 7월 중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시위대의 정치 및 경제 개혁요구를 수용하여 시위는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금번 시위에서 표출된 브라질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대한 브라질정부의 이행여부가 정치권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됨.
- 한편, 대규모 시위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대비한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유치 및 경제성장 견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 거대한 내수시장, 중남미 최대의 FDI유입국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며 세계 6위 규모의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대외지급능력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며,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일부는 2013년 6월과 10월 높은 정부채무 및 재정수지 확대 등의 이유로 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함.
- 상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브라질의 국별신용등급을 종전보다 1단계 강등한 C1으로 평가하고자 함.

선임조사역 최민이(☎02-3779-5711)
E-mail: lucia@koreaexim.go.kr